

## 話行(Speech Acts) 對照分析 序說

黃 迪 倫  
(英語教育科)

### I. 序 論

언어연구의 초점을 사용맥락에서 유리시킨 自律的 記號體系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실제 대화나 그 밖의 의사교환행위의 수단으로서의 언어로 옮기고 보면 언어표현이 갖는 의미와 기능은 狹意의 文法이나 微視的意味論의 테두리를 넘는 여러가지 양상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아래 문장 (1)에서 (9)는 명령문, 서술문, 의문문 등 서로 다른 여러가지 문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고 심지어 (6)과 (9)는 ‘문을 열다’라는 命題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적절한 맥락에서는 모두 “문을 열라”는 명령이나 요청의 기능을 하게 된다.

- (1) Open the door.
- (2) Can you open the door?
- (3)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 (4) The door should be open.
- (5) Why not open the door?
- (6) Haven't you forgot to do something?
- (7) I would prefer the door open.
- (8) You will open the door right this minute or else.
- (9) It's hot in here.

(Clark and Clark 1977:28)

또 이와는 반대로 *You're not going out.* 라는 한가지 형태의 표현이 비오는 날 아버지가 감기걸린 아들에게 한 말일때는 “나가지 말라”는 명령의 기능을 하게되고, 감기 걸린 친구가 자기는 온종일 집에 있겠다고 말한데 대한 반응으로 쓰였을 때는 그것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게 되며, 납치범이 인질에게 한 말일때는 협박의 기능을, 같이 어디 가기로 한 사람이 안간다고 한데 대한 반응으로 쓰였을 때는 놀라움을 나타내고, 그냥 단순한 진술(“누가 찾아 오면 내가 여기 있다 문을 열어 주겠지.”의 뜻으로)을 나타낼 수도 있다. (Riley 1981: 125)

이런 예들이 말해주는 것은 실제대화나 그 밖의 커뮤니케이션 장면에서 명령이나 요청은 명령문으로, 진술은 서술문으로, 질문은 의문문으로, 식으로 한 言表(utterance)가 갖는 의

미나 기능은 그것의 문법적형태와 반드시 1:1로 일치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와 그밖에 言表가 실제 使用脈絡에서 갖는 여러가지 양상들을 체계적으로 記述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Austin(1962), Searle(1969)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른 話行論(Speech Act Theory)과, 이것이 Grice(1975) 등을 거치면서 확장된 活用論(Pragmatics)에서 꾸준히 시도 되어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話行論과 活用論의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언어능력'이란 개념을 狹意의 文法性이나 命題의 意味의 이해 라는 차원만 갖고 定義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活用論이나 社會言語學的 측면에서 제창된 意思疎通能力(commun-icative competence)의 개념으로 볼때 Chomsky 등이 내세웠던 언어능력(competence)과 언어 수행(performance)의 엄격한 구분이 성립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의심스러운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 개념을 살려 사람이 갖는 言語知識과 實際言語遂行을 구분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sup>(1)</sup> 사람이 의사소통의 산 수단으로써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 지녀야 하는 知識(knowledge)에는 文法이나 抽象的 또는 微視的 意味論과 관련된 것 외의 여러가지가 포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Faerch and Kasper(1984:214)는 언어사용자가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 지식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話用的(pragmatic)知識을 "...knowledge of how verbal acts are understood and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a speaker's intention under contextual and discoursal constraints"라 定義하고 이속에 "규칙"의 개념에 속하는 敘述的 話用知識(declarative pragmatic knowledge)과 "遂行"의인 성격을 갖는 遂行的 話用知識(procedural pragmatic knowledge)을 포함 시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구성요소를 다시 세분하고 있는데 그중 분명히 competence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敘述的 話用知識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言語的知識(Linguistic knowledge)

話行的 도구로서의 언어의 音韻, 統辭, 語彙등에 관한 규칙과 言語的 要素가 갖는 의사전달 잠재성(commun-icative potential)에 관한 지식

(1) 예를 들어 Davis(1979)는 competence와 performance의 구분이 發話行爲(illocutionary acts)의 記述에서도 성립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distinction between competence and performance used in linguistics can, I believe, be generalized to any behavior which requires as part of its explanation appeal to the knowledge of the organism which governs that behavior....

The distinction between competence and performance can be applied to illocutionary acts. To perform an illocutionary act a speaker must know the rules constitutive of the act and apply them on a particular occasion appropriate for their use. A speech act theorist, then, in specifying the rules constitutive of illocutionary acts is describing the speaker's illocutionary act competence. Correspondingly, there must be a theory about how these rules are used on particular occasion, that is, a theory of the performance of these acts which would fall, perhaps, within the domain of psychology. (p. 501).

2) 話行知識(Speech-act knowledge)

주어진 社會·文化集團과 그 집단의 制度속에서 가능한 언어행위(verbal acts)와 그것의 成立條件(constituting conditions)에 관한 지식

3) 談話的 知識(Discourse knowledge)

談話라는 보다 큰 단위 안에서 話行들이 갖는 連結的·相互作用的 局面에 관한 지식

4) 社會·文化的 知識(Socio-cultural knowledge)

언어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규범, 제도 및 대화자간에 가능한 사회적 관계등에 관한 지식

5) 脈絡知識(Context knowledge)

커뮤니케이션의 현장에 있는 여러 요소중 어떤것이 언어표현 선택에 작용하는가에 관한 지식

6) 世上事知識(Knowledge of the world)

위 1)~5) 以外的 世上의, 여러가지 事實, 事物, 關係등에 관한 知識

이상과 같은것들이 인간의 '언어능력'이란 개념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 드릴때, 언어능력의 규명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언어학의 모든 접근법에서 그렇듯이, 우리의 큰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이들 요소들의 普遍性(universality)과 特異性(specificity)에 관한 문제이다. 근래에 話用論的研究에서 발견되는 여러가지 규칙이나 양상중 어떤것들이 모든 言語集團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어떤것들이 言語集團에 따라 서로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한 比較 또는 對照分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것도 이런 관심의 발로라고 할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관심의 초점을 話行에 두고 우선 普遍性和 特異性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본뒤, 실제로 話行比較分析을 하려고 할때 고려해야할 점들이 무엇이며 가능한 분석의 틀(frame)은 어떤것이 될 수 있는지를 英語와 韓國語의 예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비교분석의 준비과정으로서, 영어의 경우 기존 연구논문에서, 우리말의 경우 주로 머리 속에서 생각 해낸 제한된 데이터들을 갖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알아보고, 화행비교분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 해보려는데 불과하다. 영어와 국어에서의 화행이 갖는 보편성과 특이성에 대한 확신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언어행위의 현장에서 수집된 많은 데이터들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본격적 연구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II. 普遍性的의 問題

話行이 갖는 여러가지 양상중 여러 언어간에 보편적인 국면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까지가 보편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 되고 있는데, 話行의 普遍性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Gordon and Lakoff(1971)는 여러가지 다른 언어를 쓰는 話者들을 조사해본뒤 자기들이 제사한 會話公準(conversational postulates)은 言語間에 普遍的일 것이라고 주장 했는데, 이를 Ochs-Keenan(1976)이 어느정도 뒷받침 하고 있다. Schmidt and Richards (1985)에 의하면 Fraser (1978)도

14개의 다른 언어에서 ‘요청’을 나타내는 방법(strategies)을 비교해 보고 나서 發話行爲(illocutionary acts)를 수행하는 전략(strategies)은 본질적으로 모든 언어에 공통이라고 주장했으며, 話行戰略의 普遍性에 대한 보다 강한 주장이 Brown and Levinson(1978)에 의해 제시되었다.

보편성에 대한 같은 주장을 Fraser, Rintell and Walters (1980)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특정 話行을 언제 만드시 해야되고 언제는 해도 좋으며, 언제는 해서는 안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언어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話行은 모든 언어에 보편적이라는 전제를 다음과 같이 내세우고 있다.

Every language makes available to the user the same basic set of speech acts, such as requesting, apologizing, declaring, and promising, with the exception of certain culture-specific ritualized acts such as....

Every language makes available the same set of strategies—semantic formulas—for performing a given speech act.

...if one can request, for example, in one language by asking the hearer about his ability to do the act (“Can you do that?”), by expressing one’s desire for the hearer to do the act (“I’d really appreciate if you’d do that”), or by explicitly announcing what you intend (“I request that you do that”), then these same semantic formulas—strategies—are available to the speaker of every other language. (pp. 78-79).

그러나 이와 같은 普遍性에 대한 주장들은 Schmidt and Richards (1985:111)에서 지적되었듯이 대개가 가정(assumption)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이를 확인 하거나 부정할 만한 충분한 民族誌學的(ethnographic) 연구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話行戰略(speech-act strategies)의 문제에 있어서 普遍性은 아주 一般化된 次元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實現(realization)의 단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Searle(1975)은 모든 언어에서 聽者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언급함으로써 ‘요청’의 화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진 몰라도 한 언어에서의 표현을 문자 그대로 다른 언어로 옮긴 것이 그 언어권에서도 만드시 요청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영어의 “Can you hand me that book?”를 체크코語로 옮긴 경우를 들어 지적 하고 있다. 그는 이어(Searle 1976) 發話力(illocutionary force), 發話行爲(illocutionary act), 發話動詞(illocutionary verb)의 개념은 구별되어야 하며 發話(illocutions)는 言語一般의 한 부분이지만 發話動詞는 특정언어의 한 부분임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alters(1978)는 ‘要請’의 話行이 영어와 스페인語에서 어떻게 실현 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한 비교분석에서 근본적으로는 두 언어에서 같은 전략이 가능하나, 실제 사용면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 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Green(1975)도 영어의 “Would you...?”와 같은

형식의 표현이 스페인語, 희브리語, 日本語에서는 ‘요청’의 기능을 갖지 못함을 지적 했고 Cole(1975)은 영어에서 요청을 나타내는 “Let’s...”와 같은 표현이 스와힐리語와 이디쉬語에서는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Blum-Kulka and Olshtain(1984)은 오스트라리아의 영어, 미국영어, 캐나다의 불어, 화란어등 8개국어의 ‘요청’과 ‘사과’의 화행을 비교분석하는 연구(CCSARP: Cross-Cultural Study of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의 중간보고에서, 큰 차원에서 본 여러가지 현상은 장치 普遍性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후보로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實現패터의 부포에서는 언어간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특히 Wierzbicka(1985)는 話行의 普遍性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서 영어와 폴란드語를 비교분석하여, 과거에 영어를 중심으로한 記述에서 普遍的現象이라고 여겼던 여러가지가 언어와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권유’의 화행에서 영어에서는 명령문의 사용은 극히 제한되고 대신 의문문이나 조건문을 많이 쓰는데 폴란드語에서는 잘막한 명령문이 보통이며, 영어에서 아주 흔한 ‘How about a NP?’에 해당하는 표현이 폴란드말에는 없고, 영어에서 다음의 표현들은 ‘요청(request)’ 화행의 아주 흔한 實現法인데 이들을 문자 그대로 폴란드語로 옮겨 놓으면 그중 어느것도 ‘요청’의 기능으로 쓰일수 없다고 한다(p. 151).

- Will you close the door please?
- Would you get me a glass of water.
-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 Won't you close the window please.
- Do you want to set the table now?
- Why don't you clean up that mess.

이 중 특히 영어에서는 주로 요청이나 권유의 기능으로 쓰이고 순수한 질문의 기능으로는 거의 안쓰이는 Why don't you...? 표현은 그대로 폴란드語로 옮기면 질문과 비판을 합친 것으로 (영어의 Why paint your house purple?과 같이) 해석 된다는 것이다. (2)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볼 때 우리는 Leech(1983:10, note 11)의 말 처럼 아주 一般的인 次元에서의 協同原則(Cooperative Principles)나 恭遜原則(Politeness Principles)등은 普遍的일 가능성이 크나 이들의 實際運用(operation)은 서로 다른 文化와 言語集團 및 社會脈絡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그것의 究明을 위한 比較 또는 對照分析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2) 우리 말과 비교 했을때도 거의 같은 얘기가 성립됨을 III장에서 지적하겠다.

### Ⅲ. 對照分析의 內容과 方法

#### 1. 話行規則(條件)

言語間的 話行比較分析에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 언어에서 쓰이는 話行의 종류가 같으나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話行의 분류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한때 Austin이 생각 했듯이 한 언어에는 그 언어가 갖는 遂行動詞(performative verbs) 만큼의 話行이 있다고 생각 하는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Searle 1976) 당장 손쉬운 방법은 두 언어가 갖는 遂行動詞들을 비교해 보는것 일 것이다. 그러면 종교 문화권의 차이에 따라 영어의 baptize, excommunicate 등에 해당하는 話行이 없는 언어가 있다는것 등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의 문제들인데 이는 James(1980: 127)의 다음 말에 잘 요약 되어 있다.

...Thus, German *Befehl* as a lexical item is equated with English *command*: but is it a pragmatic equivalent also? In other words, is *Befehl* specified by the same four conditions as specify *command*? Secondly, does it hold true for *Befehl* that it can be executed by a S in the same 17 ways as *command* is? Or finally, of the 17 or so possible realizations of this act in German and English, which are preferred by speakers of each? These are the kinds of question that contrastivists must begin to answer.

따라서 두 언어에 동등한 遂行動詞가 있을때 이 동사가 나타내는 話行이 話用的으로 동등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는 그 話行을 형성하는 규칙(constitutive rules) 또는 조건(conditions)들을 비교 해 봄으로서 가능한데, James(1980: 124)의 말처럼 이들 조건 들은 언어간에 보편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영어의 'command'에 관한 다음 조건 들은 그대로 우리말의 '명령'에도 적용 된다.

If A request B to perform an action X at a time T, A's utterance will be heard as a valid command only if the following preconditions hold:

B believes that A believes that

- 1) X needs to be done for purpose Y.
- 2) B has the ability to do X.
- 3) B has the obligation to do X.
- 4) A has the right to tell B to do X.

(Labov 1973: 255)

이 밖에도 Searle (1969:57-67)에 제시된 'Promise'의 9가지 형성조건이나, 이와같은 형성조건(규칙)들을 다시 命題內容條件(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 豫備條件(preparatory condition), 誠實性條件(sincerity condition), 本質的條件(essential condition)의 네 범주로

분류하여 request; assert, state, affirm; thank; advise, 등의 話行에 관해 제시한 조건들을 보면 이들은 적어도 영어와 우리말에는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話行條件 또는 規則들이 언어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Bell (1981:122)은 영어의 'threatening'의 조건중 중요한 것의 하나로 'The propositional content is a future act (A) of the speaker.'를 들고 "I cannot threaten anyone by referring to a past or present action of mine, e.g. 'I hit you last week' and 'I'm hitting you now' are not threat but reports of..."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우리말에서의 '협박'의 화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너 지난번에 지각했을때 종아리 열대 맞았어"는 앞으로 다시 지각하면 같은 벌이 내릴 것이라는 협박이 되며 "나 지금 손에 칼 들고 있어"하는 것은 여차 하면 저른다는 협박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sup>(3)</sup>

Wolfson(1981)도 영어와 인도네시아語, 일본어, 이란어, 아랍어 등을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칭찬(compliment)' 화행을 비교하고 나서 "what counts as a compliment may differ very much from one society to another"(p.17)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어 에서 "그 많은 장을 보느라고 피곤 했겠어" "새 자봉틀 샀군요" "저금을 참 많이 했군요"등의 의미를 가진 만들이 '칭송'의 기능을 하고, 일본어에서 "당신귀거리는 순금이지요 그렇죠" "돈이란 사람을 매력있게 하는 필수 조건이야" 등의 말이 '칭송'의 기능을 하나 미국영어에서는 그렇지 못하며,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의례히 'compliment'로 받아들려지는 "Hey, what's the occasion? You look really nice today." "Wow! Linda! What did you do to your hair?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It looks great." 같은 말들이 불란서 사람들에게는 모욕으로 받아들려진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말에서는 위와 같은 모든 표현들이 '칭송'의 기능을 하는것 같다.

이상과 같은 차이들은 다음에 언급할 話行實現上의 차이일 가능성도 있으나, Searle이 말했듯이 話行規則은 "X counts as Y in context C"의 성격을 갖는 制定規則(constitutive rules) (regulative rule과 對照되는)이기 때문에 두 언어에서 서로 對應을 이루는 표현이 한 언어에서는 특정 화행으로 간주되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일단 화행규칙상의 차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분석함이 옳을 것이다.

## 2. 話行의 實現(speech-act realization)

話行規則에 이어 비교 해야 할 것은 話行의 實現方法이다. 서로 다른 언어집단이 같은 話行들을 갖고 있고 그 話行들을 성립시키는 조건 또는 규칙이 같다 하더라도 그 실현방법(realization)에서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행규칙은 보다 一般的인 次元

(3) 물론 이런 말들은 그것이 쓰일때의 상황과 그말을 어떤 억양으로 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진술이 될수도 있다.

의 것이기 때문에 言語集團間에 普遍的일 가능성이 크나 보다 구체적인 차원의 문제인 화행실행에서는 언어간에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실제로 앞서 II장에서 언급된 것이나 그밖의 既存研究에서 들어난 차이들은 주로 이차원의 것들이다.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위해서 Riley (1981), Wolfson (1981) 등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한 언어에서 어떤 構文(structure)이 實現할 수 있는 話行의 범위와 다른 언어에서 그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構文이 實現할 수 있는 話行의 범위 비교:

Riley(1981:131)에 의하면 불어, 영어, 스웨덴어에는 다 같이 'If(si, om)+조건절'의 구문이 있는데 불어와 스웨덴어에서는 이 구문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능을 나타 낼 수 있다.

(1) 假定(Hypothesizing)

S'il arrive, je le lui dirai.

Om han kommer, ska jag berätta det för honom.

(2) 確認要請(Requesting confirmation)

Si je suis prêt? (C'est bien ce que tu viens de me demander?)

Om jag är färdig? (Jo, jo!)

(3) 提案(Suggesting)

Et si on allait au cinéma ce soir!

Om vi sku' gå på bio i kväll!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영어 構文은 아래에서 보듯이 '가정'의 기능만 할뿐 '확인요청'이나 '제안'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1) If he comes, I'll tell him.

(2) \*If I am ready?

(3) \*If we go to the cinema this evening.

(여기서 \*표는 이들 표현이 非文法的이란 뜻이 아니라 제시된 기능으로는 쓰지 못한다는 뜻이다).

영어와 우리말의 비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영어에서는 순수한 '질문'의 기능으로는 거의 안쓰이고 주로 '권유'나 '요청'의 기능으로 쓰이는 "Why don't you...?" 構文에 대응하는 우리말 "왜 ...하지 않는가/않습니까?"는 순수한 질문이나 비난적인 질문(영어의 Why paint the house blue? 등에 해당하는)의 기능을 하되 권유나 요청의 기능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sup>(4)</sup>

(2) 영어의 "Won't you...?" 構文은 주로 '요청' '권유'의 기능으로만 쓰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요청' '권유' 외에 '협박'의 기능을 한다.

(4) 이점을 예시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즉, 미국유학을 간 한국학생이 지도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갔는데 서서 얘기 하니까 지도교수가 앉으라고 "Why don't you sit down?" 했는데 이 뜻을 순수한 질문으로 받아드려 "Because you are my professor."라고 했다는 얘기가.



예 : “너 그거 여기 놓지 않을 거야?”

“너 거기 가만 있지 않을래?”

(3) 앞서 I 장 序論에서 들었던 예로서 영어의 “You’re not going out” 등의 단순한 서술문이 여러 다른 기능과 더불어 “금지” “협박” 등의 기능도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말 “너는 나가지 않는다” 등은 그런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2) 두 言語에서 特定 話行이 實現될 수 있는 構文上의 可能性比較 :

이는 화행과 그 실현법의 관계를 1)과는 반대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한가지 측면에서만 살폈을 때 놓지게 되는 것이 이렇게 양쪽 측면에서 살펴 봄으로써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간단한 예로서 영어와 우리말의 ‘칭송(compliment)’ 실현방법을 살펴 보기로 한다. Wolfson(1981)은 근 700개나 되는 미국영어의 ‘compliment’ 事例를 분석해본 결과 그중 85%가 다음 세가지 構文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1) NP<sup>[is]</sup>  
[look] (really) ADJ

예 : This chicken is great.

Your pin looks nice.

(2) I (really) <sup>[like]</sup>  
[love] NP

예 : I like your shirt.

I love your blouse.

I really like your hair that way.

(3) PRO is (really) (a) ADJ NP

예 : That’s a very nice briefcase

That was a really great meal.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 표현들을 보면 위 (1)과 (3)은 그대로 우리말에서도 ‘칭송’의 기능을 할수 있다. 즉

“이 닭고기 아주 좋다”

“네 핀 멋있어 보인다”

“그거 참 좋은 가방이다”

“그거 참 맛있는 음식이었다”

등은 흔히 칭송의 기능으로 쓰이는 말들이다. 그런데 (2)의 경우는 차이가 있는것 같다. 우리 말에서도 이 구조의 표현이 칭송의 기능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의 목소리가 좋다” “저는 김선생님의 성격/몸매/노래/강의/그림이 좋습니다” 등이다. 그러나 ‘칭송’의 뜻으로 “나는 당신의 셔츠/부라우스가 좋다” “나는 당신의 책장이 좋다”라고 말

하는 것은 어색하다. 따라서 우리말의 경우는 (2)의 구조에서 NP자리에 상대방의 屬性이나 상대방이 하는 또는 해놓은 일등이 올때는 칭송의 기능을 할수 있으나 상대방의 소유물등이 올때는 그렇지 않다는 제약규칙이 성립되는 것 같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우리말에서는 ‘칭송’의 기능을 하는 構文이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II, 1)에서 든 예문 참조)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 영어와 우리말의 ‘명령’ 또는 ‘요청’의 實現方法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Widdowson(In James 1980:125)은 앞서 언급된 Labov의 화행규칙을 이용하여 영어에서 ‘commanding’이 실현되는 방법을 무려 17가지나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서술문을 사용하여 Labov가 제시한 ‘명령’의 네가지 조건중 하나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 (1) These windows need cleaning.
  - (2) You can clean windows John.
  - (3) You are in charge of windows.
  - (4) It's my duty to make sure the windows get cleaned.
- b) ‘명령’의 네가지 조건에 간접적으로 언급한다.<sup>(5)</sup>
- (5) I can't see through these windows.
  - (6) I'm too ill to clean these windows.
  - (7) Somebody's forgotten to clean the window.
  - (8) I hate having to tell people to clean the windows.
- c) ‘명령’의 네가지 조건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의문문을 씀으로써 그 조건에 聽者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 (9) Are those windows clean?
  - (10) Have you been too ill to clean windows?
  - (11) Aren't you in charge of the window-cleaning?
  - (12) Did I forget to tell you to clean the windows?
- d) 의문문으로 ‘명령’의 네가지 조건에 간접적으로 언급한다.
- (13) Do you like living in a dark room?
  - (14) Have you run out of 'windowlene' then?
  - (15) Have I met the new chap in charge of window-cleaning?
  - (16) Do you think I like going round giving people orders all day?
- e) 명령문으로 명령한다.
- (17) Clean those windows.

(5) 이는 Searle(1975:60)이 말한 間接話行(indirect speech act), 즉 한 發話行爲가 다른 發話行爲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라는 제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I have to study for an exam.”이라고 하는 것등이다.

이들 영어표현들에 대응하는 우리말은 다음과 같은데 이중 \*표가 붙은것은 ‘명령’이나 ‘요청’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영어라 우리말의 화행실현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 저 창문을 닫아야겠다.
- (2) \* 쏘, 너는 저 창문들을 닫을수 있다.
- (3) 네가 창문 담당이다.
- (4) \* 창문들이 틀림없이 닫아지도록 하는것이 내 의무다.
- (5) 이 창문으로 밖을 볼수가 없다.
- (6) 나는 너무 아파서 이 창문들을 닫을수가 없다.
- (7) 누가 창닫는 일을 잊어 버렸다.
- (8) \* 나는 사람들에게 창 닫으라고 일르는게 싫다.
- (9) 이 창문들이 깨끗하냐?
- (10) 너무 아파서 창을 닫을수가 없었니?
- (11) 내가 창닫는일 담당이 아니냐?
- (12) 내가 너더러 창 닫으라고 일르는것을 잊어 버렸던가?
- (13) 너는 어두운 방에서 사는걸 좋아 하니?
- (14) 그때 windowlenne이 다 떨어 졌었니?
- (15) \* 내가 새로운 창닫이 담당을 만났던가?
- (16) 너는 내가 온종일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돌아다니길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 (17) 저 창문을 닫아라.

Earvin-Tripp (1976)은 미국영어에서의 ‘指示’(directives)<sup>(6)</sup> 話行의 실현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것을 다음과 같은 6가지 형태로 구분 정리하였다.

- (A) 心要陳述文 (need statement)
  - I need (want) a match.
- (B) 命令文 (Imperatives)
  - (a) 普通命令文
    - Give me a match.
  - (b) 省略形 (elliptical)
    - A match.     Coffee, black.
  - (c) You+命令文
    - You should turn right here.
    - Here, you can run these in the book.
    - Well, you read that article.
  - (d) 注意喚起文 (attention getters)
    - Please.     Excuse me! (길 비켜 달라는 뜻)

(6) ‘指示’(directives) 話行은 Searle(1976)이 영어의 여러가지 화행들을 다섯개의 큰 범주로 묶어 정리한것 (representatives, directives, commissives, expressives, declarations)중의 하나로써 聽者가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할때 쓰는 모든 화행, ‘명령’, ‘요청’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 (e) 後置附加疑問文 (Post-posed tag)

Carry some of these, will you?

## (f) 上昇抑揚 (rising pitch)

Give me a copy? Get me that book, Al?

## (C) 內包命令文 (embeddeel imperatives)

Why don't you open the window?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Could I trouble you to open the window?

Can (Will, Won't) you open the window?

Would you care to open the window?

## (D) 許可要請形 (Permission directives)

May I have a match?

Can I have my record back?

## (E) 非明示疑問形 (Non-explicit question directives)

You ready? Are we out of coffee?

You don't have any doughnuts or rolls to go, do you?

## (F) 暗示 (Hints)

It's really cold tonight.

Oh dear, I wish I were taller.

이들중 앞서 나열한 Widdowson의 것과 중복되지 않는것은 (B)의 (b)와 (d), (C), (D), (E)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 표현은 다음과 같다.

(B) (b): “성냥!” “커피, 불뿔으로”

(d): “제발!” “실례 합니다”

(C): \* 왜 창문을 열지 않습니까? <sup>(7)</sup>

\* 창문 열기를 꺼리겠습니까?

\* 창문 여는 일로 귀찮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 창문을 { 여실수 있습니까? <sup>(8)</sup>

{ 여시겠습니까?

{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 창문을 열고 싶으십니까?

(D): \* 성냥을 얻어도 좋습니까?

(7) 영어의 “Why don't you...?”는 물론 그 뜻을 우리말의 “왜 ...하지 그래/그러십니까?”로 옮길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논의의 초점은 한 화행을 실현하는 언어표현의 構文上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니 만큼, 영어의 “Why don't you...?”에 대응하는 “왜...하지 않는가?”가 영어와 같은 화행을 하느냐를 따져 보는 것이다.

(8) 우리말에서 이들 표현에 ‘...주...’를 넣어 “열어 주실수 있습니까? 열어 주시겠습니까? 열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로 하면 완전한 ‘요청’의 화행을 이룬다. 그러나 “창을 열어 주실 수 있습니까?”에 해당하는 영어는 “Can you open the window for me?”이다.

제 레코드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 준비 됐어? 커피 떨어졌나?

(내가)사 가지고 갈 수 있는 도너츠나 볼케익 없겠지요?

이상의 예에서 \*표나 ??표가 붙은것들은 상대편더러 무엇을 해달라는 '지시'의 기능을 갖는다고 볼수 없거나, 아주 어려운 것들이어서 영어와 우리말의 '지시' 화행 실현방법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話行의 言語의(특히 統辭的) 實現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또다른 예로서 發話動詞(illocutionary verbs)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수가 있다.

첫째는 發話動詞의 表層露出에 관한 것인데 Searle(1976:6)에 의하면 영어에서 state, promise, order, conclude 등 대부분의 수행동사는 表層에 나타나 "I state/promise/order (you)..."으로 쓰일수 있으나 boast, threaten 등은 그렇지가 못해서 \*"I hereby boast...", \*"I heareby threaten..." 등으로 '자랑(boasting)'이나 '협박(threatening)'의 화행을 수행할 수 없다. 우리말에서도 \*"나는 ...할것을 협박하노라/한다"는 역시 안되지만 "나는 내아들이 ...임을 자랑한다"는 가능한것 같다.

또하나는 특정 수행동사가 그것이 포함된 문장의 統辭構造에 가하는 제약인데 영어의 'expressive' 화행의 경우 그 표현의 통사적심층구조는 I verb you+I/you VP 이나 이때 VP는 반드시 動名詞化 變形(I verb you + I/you VP ⇒ Gerundive Noun)을 거쳐야 해서 apologize, congratulate, thank 등 동사 다음에는 that-節이나 不定詞句는 올수 없다. (Searle 1976: 12, 18)

예: I apologize for stepping on your toe.

\* I apologize that I stepped on your toe.

\* I apologize to step on your toe.

I congratulate you on winning the race.

\* I congratulate you that you won the race.

I thank you for giving me the money.

\* I thank you that you gave me the money.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듯이 우리말에는 그런 규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예: 제가 덕의 발을 밟은것을 사과드립니다.

덕이 경기에 이긴것을 축하 드립니다.

저에게 돈을 주신것을 감사드립니다.

### 3) 話行의 連鎖, 즉 發話構造(illocutionary structure)의 비교:

이는 실제 담화에서 어떤 話行 뒤에는 어떤 話行이 오는데 정상인가 하는 話行의 連鎖規則을 비교해 보는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한 言表의 話用上의 기능을 알아 보는데 초점을 두

는 話行理論보다는 문장단위를 넘는 談話單位의 構造를 分析·記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 談話分析(discourse analysis)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분야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는 話行과 관련된 문제이다.

談話속에서 여러 話行이 수행될 때 그들의 連鎖關係에는 어떤 制約이 있음을 다음 예들이 보여 주고 있다.

예 : (1) #Excuse me, My name's Mike Stubbs.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Stubbs 1983:16)

(2) Teacher: What did you do last night?

Pupil: I went to a movie.

Teacher: Very good.

(Hatch 1980:17)

(1)은 잘못된 話行連鎖의 例인데(#표는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나 담화구조상 잘못이 있음을 나타낸다) '사과(apology)+신분밝힘(identification)+질 물기(request for direction)'라는 話行連鎖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신분밝힘/자기소개'는 뒤이어 상당한 대화교류가 있을 것을 예측 또는 기대할 때 만 적절하고 필요 하다). 예 (2)는 그것이 '교사와 학생', '의사와 환자', '심문하는 사람과 심문 받는 사람' 등 사회적 역할상 상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대화자가 친구사이 등 서로 대등한 관계일 때는 잘못된 것이 된다. 이는 우리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 : # "실례합니다 제이름은 김동석입니다. 서울역이 어디 있지요?"

의사: "오늘 점심에 뭐 드셨지요?"

환자: "냉면을 먹었습니다"

의사: "좋습니다"

#친구 1: "너 어제 저녁에 뭐 했니?"

친구 2: "영화구경 했어"

친구 1: "좋아."

그러나 이런 話行連鎖規則이 言語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Riley (1981:134)에 의하면 '칭송(compliment)' + '감사(thanks)'의 連鎖는 영어나 스웨덴語에서는 자연스러우나 불어에서는 '칭송' 뒤에 merci beaucoup 등 '감사'를 표시하는 말이 절대로 따르지 않고 만일 온다면 그것은 '감사'의 뜻이 아니라 反語의인 '비꼬임'으로 해석 된다.

예 : [영어]

(1) That's a very pretty dress you're wearing.

(2) Oh, thank you very much.

[스웨덴語]

(1) En så vacker klänning du har!

(2) Tack så mycket.

[불어]

(1) Que c'est jolie, la robe que to portes!

(2) ?

우리말의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옷 참 이쁘네요”에 대한 반응은 “필요, 짜구려는데요 뭐”, “영어 참 잘하십니다”에 대한 반응은 “웬걸요, 아직 많이 서툴어요” 등의 겸양 표현이 정상이었는데 근래에 와서 영어의 영향으로 “감사합니다”가 많이 쓰이고 있다.

4) 話行의 實現比較分析의 중요한 내용과 방법으로 지금까지 언급한것 외에 ‘話行의 頻度와 分布’의 문제가 있다. 특정 화행이 두 언어에 모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빈도와 분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영어에서는 ‘칭송’의 화행이 영국영어나 그밖의 다른 언어에서 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훨씬 자주 쓰이며(Wolfson 1981), 미국 영어에서는 ‘감사’의 화행이 우리말에서 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자주 쓰여서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성실성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쉬우며,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에서 무뚝뚝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것 등이다.

또한 특정화행의 여러가지 실현방법이 두 언어에 모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이중 어떤것이 선택되느냐, 특히 사회적 맥락에 따른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s)의 선택과 이들의 謙讓度(politeness) 등에서 차이를 보일수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社會言語學的 次元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統計的으로 분석 처리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 IV. 結 論

이상에서 우리는 話行對照分析의 필요성과 내용, 방법등을 극히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들어본 예들은 주로 話行에 관한 敘述的 規則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그나마 기존 연구논문에서 마운것과 머리속에서 생각해낸 극히 제한된 것들이다. 본격적인 話行對照分析에서는 敘述的規則과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遂行過程上(procedural)의 패턴이나 규칙, 특히 社會的 脈絡과 話行이나 그 實現方法의 선택사이의 상관관계등이 실제대화상황에서 수집된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분석·기술되어야 함은 두말할것도 없다. 또한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것은 영어와 우리말의 비교에서는 주로 영어기술을 주축으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 표현을 비교해 보았는데, 우리말자체의 화행분석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를 영어와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사실이 들어날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화행대조분석의 예비단계로서 대조분석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분

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보려는 것인바 이는 어느정도 달성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맺기에 앞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것은 화행대조분석의 결과는 외국어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것이라는 사실이다. 외국어 사용에서 일어나는 불완전한 또는 잘못된 의사전달행위의 결과는 크게 의사교류 단절(communication breakdown)과 오해(misinterpretation)로 나눌수 있는데 전자는 사용한 言表가 非文法的이라 애당초 그뜻의 해석(interpretation)이 불가능한 이른바 表出誤謬(overt error)에 기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용한 言表가 文法的으로서는 하자가 없으나 다른점에서 잘못되어 話者가 원래 의도했던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非表出誤謬(covert error)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非表出誤謬에 기인한 誤解는 차라리 의사교류가 완전히 단절된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기가 일수다. 話行上의 誤謬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表出誤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어사용자의 모국어의 話行規則이나 實現法이 외국어의 그것과 달라서 그 영향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Schmidt and Richards (1985)는 이 문제를 여러형태로 구분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지각했다고 꾸지람하는 상사에게 “죄송합니다.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는 아주 정중한 사과인데 이를 그대로 옮긴 “I’m sorry. I have nothing more to say.”는 오히려 건방지고 불손하게 받아드려진다(Cohen and Olstein 1985:180). 따라서 話行對照分析의 결과는 외국어로서의 意思疎通能力(communicative competence)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외국어교육에서 학습자가 겪을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것이 분명하다.

### 參 考 文 獻

- 張奭鎭. (1985), 話用論研究. 서울: 塔出版社.
- Austin, J.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lum-Kulka, S., and E. Olshtain. (1984). Requests and apologies: a cross-cultural study of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 (CCSARP). *Applied Linguistics* 5(3).
- Clark, H.H., and E.V. Clark.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Cohen, A.D., and E. Olshtain. (1981). Developing a measure of socio-cultural competence: the case of apology. *Language Learning* 31(1).
- Cohen, A.D., and E. Olshtain. (1985). Comparing apologies across languages. In K.R. Jankowsky, (ed.) *Scientific and Humanistic Dimensions of Language: Festschrift for*



- Robert Lado on the occasion of his 70th birthday on May 31, 1985.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Cole, P. (1975). The synchronic and diachronic status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Cole and Morgan, (eds.)
- Cole, P., and J. L. Morgan (eds.) (1975).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es.
- Davis, Steven. (1979). Speech acts: performance and competence. *Journal of Pragmatics* 3(5).
- Earvin-Tripp, S. (1976). Is Sybil there? The structure of some American English directives. *Language in Society* 5(1).
- Faerch, C., and G. Kasper. (1984). Pragmatic knowledge: rules and procedures. *Applied Linguistics* 5(3).
- Ferrara, A. (1980). An extended theory of speech acts: appropriateness conditions for subordinate acts in sequences. *Journal of Pragmatics* 4(3).
- Fraser, B. (1975). Acquiring social competence in a second language. *RELC Journal* 9(2).
- Fraser, B., E. Rintell, and J. Walters. (1980). An approach to conducting research on the acquisition of pragmatic competence in a second language. In D. Larsen-Freeman, (ed.), *Discourse Analysis in Second Language Research*. Rowley, MA: Newbury House.
- Gordon, D., and G. Lakoff. (1971). Conversational postulates. *Papers from the Seve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 Green, G. (1975). How to get people to do things with words. In Cole and Morgan, (eds.).
- Grice, H.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and Morgan, (eds.).
- Hatch, E., and M.H. Long. (1980). Discourse analysis, what's that? In D. Larsen-Freeman, (ed.).
- James, C. (1980). *Contrastive Analysis*. Longman.
- Labov, W. (1972). The study of language in its social context. *Sociolinguistic Patter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eech, G.N.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New York: Longman.
- Ochs-Keenan, E. (1976). The universality of conversational postulates. *Language in Society* 5(1).
- Richards, J.C., and M. Sukwiwel. (1985). Cross-cultural aspects of conversational competence. In J.C. Richards. *The Context of Language Teach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ley, P. (1981). Towards a contrastive pragmalinguistics. In J. Fisiak, (ed.) *Contrastive Linguistics and the Language Teacher*. Oxford: Pergamon Press.
- Schmidt, R.W., and J.C. Richards. (1985). Speech acts and second-language learning. In J.C. Richards. *The Context*.
- Searle, J.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R. (1975). Indirect speech acts. In Cole and Morgan, (eds.).
- Searle, J.R. (1976). A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1).
- Stubbs, M. (1983). *Discourse Analysis: The Sociolinguistic Analysis of Natural Language*. Oxford: Basil Blackwell.
- Walters, J. (1979). Strategies for requesting in Spanish and English—structural similarities and pragmatic differences. *Language Learning* 29(2).
- Wierzbicka, A. (1985).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languages, different speech acts. Polish vs.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9(2,3).
- Wolfson, N. (1981). Complimen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TESOL Quarterly* 15(2).

## Preliminaries to Contrastive Analysis of Speech Acts

Juck-Ryoon Hwang  
(Department of English)

###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ity, importance and possible framework of contrastive speech act analysis. The basic assumption underlying this paper is that languages may not differ greatly in the classes of speech acts and the rules constitutive of these acts, but that there exis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anguages in linguistic strategies for realizing and interpreting speech acts. An attempt is made to substantiate this assumption with data, though limited in amount, from English and Korean. Also discussed very briefly is the implication of such contrastive analyses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